

## 간암의 치료와 예방 (2)



김정룡  
서울의대 내과교수

처음부터 간암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거나 간기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수술과 간동맥화학색전술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간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환자의 간기능이 아주 심하게 나쁘지만 양다면 항암제를 정맥주사 하는 전신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전신적 항암화학요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란이 많은데, 필자가 치료하였던 예들을 분석한 바로는 환자의 전신상태가 너무 나빠서 항암제를 투여받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전신적 항암화학요법으로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악성이 아닌 양성 간질환 환자들의 치료에 간이식 수술이 많이 시행됨에 따라,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도 이러한 간이식수술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이식 수술후 결과가 좋았던 간암 환자들은 처음부터 암

자체의 병기가 별로 진행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간절제 수술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처음부터 암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어서 간절제술 등의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환자들은 이식 수술후에도 역시 대부분 2년이내에 재발하는 등 이식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식수술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술후 계속하여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데 따른 합병증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서 간암의 치료에 있어 간이식 수술의 역할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암종의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국한하여 시행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아서는 아직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권장할 단계는 아니다.

이상과 같이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어떤 한가지 치료 방법이 좋다고

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환자마다 간암의 위치와 진행된 정도, 간기능 상태, 그리고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각각 평가하여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이 선택되어지게 된다.

### 3. 예방

처음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당시부터 많은 환자들에서 완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고, 다행히 완치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결국 남아 있는 간이 간경변증에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암에 걸린 뒤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간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간암을 예방하려면 먼저 간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이런 위험한 원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된다. 간암은 아무런 병도 없이 깨끗한 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간경변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던 간에서 주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이 초래되는 원인으로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간암의 중요한 유발인자이다. 즉 B형 간염바이러스를 만성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 정도 높다.

간암은 또한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초래되는데 우리나라 간암 환자 중에서는 6명당 1명의 비율로 이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경변증 역시 간암으로 잘



간암을 예방하려면  
먼저 간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행되게 되는데 일단 간경변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더라도 간암이 발생할 위험은 계속 높은 상태로 남아 있다.

간염바이러스 이외에도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도 간염을 유발시키는데 이것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서 곰팡이에 오염된 곡식이나 견과류에 묻어 있다. 사람이 이렇게 오염된 음식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간암에 잘 걸리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화학물질들이 간암을 일으키는데 관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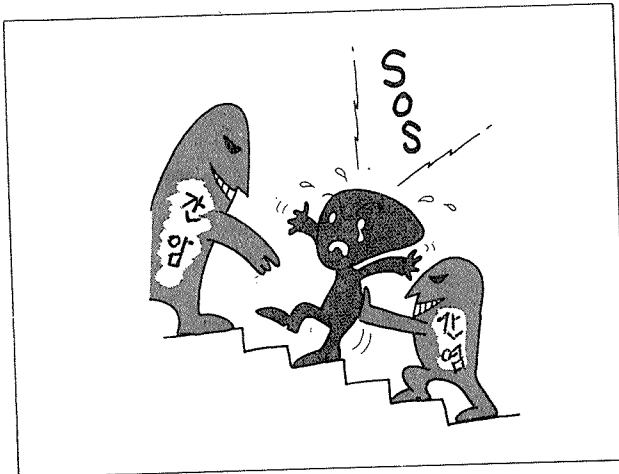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중 약 10%에 이르는 사람이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인데 이러한 만성적인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대개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때 신생아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산모에서 태어나는 신생

아에게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백신 주사를 같이 맞혀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누구나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노출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특히 정박아 보호시설 등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하거나 가족 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는 경우, 검사실 등에서 혈액을 자주 취급하는 종사자, 그리고 혈액주사를 자주 맞거나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B형간염백신 주사를 꼭 맞는 것이 좋다.

B형간염 바이러스는 또한 혈액이나 침, 또는 정액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치솔이나 면도기 등은 다른 사람 것을 사용하지 말고 각자 자기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나 침으



우리나라에서  
간경변증이 초래되는  
원인으로서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간암의 중요한  
유발인자이다.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각 환자마다의 간암의 위치와 진행된  
정도, 간기능의 상태, 그리고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각각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로 여러 사람이 주사나 침을 맞는 일은 피해야 한다.

C형간염 바이러스는 과거에 수혈을 통해서 많이 전염되었으나 최근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모든 혈액을 수혈하기 전에 미리 검사하기 때문에 수혈에 의한 감염은 많이 줄어 들었다.

그러나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측정하는 검사방법이 아직 아주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필요할 때 이외에는 수혈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C형간염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수혈을 통한 전염 이외에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예방주사도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단계이다.

만약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다가 잘못하여 그 바늘로 찔렸을 경우에도 아직 확실한 처치 방법이

없는 상태이지만 다행히 바늘에 들어 있는 C형 간염바이러스의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만성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암의 원인중의 하나인 아플라톡신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하여서 이 독소를 생산하는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미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만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등을 가지고 있어서 간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장차 간암으로 이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아직 이러한 효과가 확실하다고 입증된 치료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㉞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93. 9. 10자 보건주보에 게재된 내용임.〉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민족정기 하나로! 국민역량 한곳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